

데스크 시각

마음을 잡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송기동
예향부장

“그때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못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굶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난한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을 못 잡기 때문에’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지난 2월, ‘섬진강 시인’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김용택 시인을 인터뷰했다. ‘어찌된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라는 그의 필사(筆寫) 시집이 인기를 끌 때였다. 당초 필사 시집을 떠올린 것은 2015년이었다고 한다. 세파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 줄 방법에 대해 고심하던 ‘섬진강 시인’이 내린 처방은 좋은 시를 써 보라는 필사였다.

“시를 필사해 보면 시인의 마음에 닿지 않을까, 위로가 되지 않을까, 마음을 잡아주지 않을까?” 책을 펴낸 후 시장 반응

은 시인조차 놀랄 만큼 뜨거웠다. 책에 실린 김인옥 시인의 ‘사랑의 물리학’이 tvN 드라마 ‘도깨비’에 소개되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이후 필사 붐이 일었다. 요즘 온라인 서점에서 검색어로 ‘필사’를 입력하면 400여 권의 관련 서적 제목이 죽 뜰 정도다.

좋은 시 필사하며 위안 찾아

몇 년 새 일고 있는 필사 붐을 뒤집어 생각하면 한국 사회상이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 바로 마음을 잡지 못하는 시대다. 마음을 잡지 못하는 것은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나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한 학부모는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본조절 장애’가 있는 한 남학생이 다른 학교에서 딸이 다니는 학교로 전학을 왔다고 전해 들었다. 그 아이가 올해 한두 차례 ‘위험스러운’ 행동을 했다. 같은 반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전해들은 정도였지만 혹시나 새 학년에 같은 반이 되면 어쩌나 걱정스러워하고 있었다. 특별한 조치 없이 쉬쉬하고 넘어가는 듯한 학교 측의 대응에도 불만이 많다. 이런 염려는 다른 학부모들 역시 마찬가지여서 여차하면 공동 대

응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더욱이 최근 아이돌 그룹 멤버의 자살 뉴스가 감수성 어린 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우려스럽다. ‘핫한’ 가요뿐만 아니라 아이돌 가수의 사생활 일거수일투족도 어린 팬들에게 큰 파급력을 갖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마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학업 때문일까, 사회적 분위기 때문일까? 최근 빈발하고 있는 ‘몸치마 범죄’는 과정을 무시하고 성과와 결과만을 요구하는 ‘일등 만능주의’ 세태를 보여 주는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풀이된다. ‘필사’뿐만 아니라 ‘명상’도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최근 취재자 만난 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은 “우리가 기운을 잃었을 때, 예나나 술이 아니고 마음으로 다시 기운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명상”이라고 말했다. 고 이사장이 운영하는 명상치유센터 ‘깊은 산속 용담샘’을 찾는 연간 이용자는 10만여 명. 지난 2010년 10월 충북 충주에 문을 연 이곳 명상 프로그램은 걷기 명상을 비롯해 향기 명상, 호흡 명상, 소리 명상, 웃음 명상, 칭찬 명상 등 다양하다. 센터를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숲속에 걷기 명상을 하기 좋은 ‘감사의 길’(90분)

과 ‘사랑의 길’(40분), ‘화해의 길’(40분), ‘용서의 길’(30분)이 조성돼 있다. 불화하던 사이도 숲길을 걸으며 명상하다 보면 서로 화해를 하게 된다고 한다.

마음에도 숨구멍을 내줘야

“몸에 호흡이 필요하듯 마음도 숨구멍을 열어 숨쉬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고 이사장은 최근 펴낸 ‘질대 고독’에서 ‘마음의 숨구멍을 열어 주라’고 말한다. 그는 ‘마음에 숨구멍을 내는 일’로 기도와 명상, 여행, 산책, 독서, 사랑을 꼽았다. 이제는 ‘마음 산업’이란 용어가 낯설지 않다. 요즘처럼 마음을 잡지 못하는 시대에 ‘마음 산업’은 4차 산업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 한 해,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대형 사건·사고와 한국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은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짓눌렀다. 필사와 명상 열풍은 개인 스스로 ‘마음의 숨구멍’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한해의 고드머리에 서서 바라본 새해에는 따뜻한 온기를 품어 타인을 배려하고, 나아가 마음을 다잡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song@kwangju.co.kr

기고

창작을 위한 문화 생태계 조성의 첫걸음



이정현
(주)틀아이피 1%공작소 대표

창작의 가치를 책정해본 일이 있으신가요? 문화도시 광주에서 문화예술 영역에서 활동하는 문화 인력들 중 특히 개인 자격의 작가 혹은 문화기획을 직무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획비와 창작비를 책정해 본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문화 인력들의 지적 재산권으로서 정당한 기획비, 창작비,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할 수 있을까?

최근 몇 년간 시민들의 관심을 문화적으로 이끌어내고 대중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들이 기획되고 운영되고 있다. 예전 날에는 중요한 문화 행사들이 동시에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가히 문화행사의 범람 수준이라고 느낄 때도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책 사업, 캠페인, 포럼, 공청회, 교육 프로그램, 마을과 도시재생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의 형태를 탈피하여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문

화 기획자를 비롯한 예술가, 청년 등 여러 창작자들이 만나고 일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지원하듯 광주문화재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기관에서 문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이들과 연계한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각 구의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협의회 및 통장단, 마을의 소규모 커뮤니티 단위에서도 마을 만들기과 도시 재생 사업과 결합하여 문화기획 및 창작자 연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현장의 활발한 문화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문화기획자를 비롯한 창작자들은 소비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저렴한 인건비로 현장을 운영하는 소비주체일 뿐이라는 것이다. 문화 인력들 중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 프리랜서로 일하는 문화기획자, 혹은 예술가라는 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일이 상당하다. 광주의 문화 구조는 문화 산업이라고 보다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 문화와 관련한 대부분의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와의 매칭을 통해 만들어진다. 자연스럽게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지침을 실행해 25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2020년까지 연관 기업 500개를 유치해 3만 개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유지·관리를 인계받은 나주시는 구조적·기계적 행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시설·버스시스템·문화시설 개선, 이전 기관 직원 정착 지원, 도로 및 공원 개선, 하수 및 수질 환경 사업 등 24개 사업에 지난 3년(2014~2016년) 총 872억 원을 투입했다. 또 호수공원, 가로등, 자전거 도로, 청소년·환경 등에 연평균 유지 관리비 272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10개 혁신도시 중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권인 9위에 머물렀다. 아직도 주민 숙원 사업인 복합문화 체육센터, 기업지원 종합발전센터, 의료건강

을 설립해 도급 계약을 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 사업비 사용 기준에 기획비, 인건비가 책정될 수 없다. 행사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항목으로 지출은 가능한데 이 역시 사업의 성격이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전체 사업의 동일한 기준이다. 또 창작자 개인 활동의 특성상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경력을 증명할 수 없다. 더욱이 청년일 경우 사업의 동등한 파트너이자 협력자도 되지 못하고 자원봉사 수준의 처우를 받는 일도 허다하다. 필자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기획비, 창작비, 인건비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문화도시의 문화 행정에 행정 자체를 기준에 맞게 수행하기 위한 효율성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과 정책 대상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행정에 전면일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행정은 지역의 창작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올바른 관점이 아니다. 얼마 전 ‘말씀신장’으로 얼굴이 알려진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가 ‘지식인의 몸값’을 주제로 쓴 신문 기고를 읽었다. “과연 내 머릿속의 지식이나 아이디어, 혹은 의견은 얼마의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가 있다. 소년시대가 대학 축제 때 부르는 노래 한 곡의 가격이 수천만 원이라면, 같은 축제에서 하는 지식인의 ‘1시간 강연’은 얼마가 적절할까? 품

위를 잃을까봐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식인의 몸값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궁금하다.” 기고문을 읽으면서 문화 인력들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았다. 광주발전연구원 김광욱 박사로 ‘2015년 지역문화 융성을 위한 청년문화 기획자 육성 방안 연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청년문화 기획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경력 인증 방식이 객관화돼 있지 않고 보수를 책정하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 인력의 경력 증빙과 보수 규정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광주 상상실현 네트워크’에서는 광주의 30개 청년 문화 단체(회사)의 뜻을 모아 광주시에 문화 기관에서 집행하는 사업비에 대한 정당한 인건비 근거 기준을 조례로 제정해 줄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비단 문화 현장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지적 재산권과 정당한 노동의 대가 등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배제돼 있는 관점을 드러내고 논의하기 위함이다. 문화도시 광주의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은 안 된다고, 없다고 생각되던 것들이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동안 전남도는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의 재원 범위, 용도, 기금 운용 등 조례안에 대해 광주시 관계 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수차례 협의 토론한 바 있다. 최근에는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 실무위원회에서 정주 여건 투자 내역과 향후 투자 내역, 기금조성 시기 등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한 바 있다. 이전 공공기관의 취체제 면제, 재산세(5년 면제, 3년 감면) 감면 기간이 끝나는 2023년부터 기금 출연 자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와 광주시, 나주시에는 혁신도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공동 발전기금을 빠른 시일 내에 출연 조성해 동반 발전을 견결히 바라며 준비하고 있다. 독자적인 접근보다는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잘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

기고

광주·전남 혁신도시 활성화 어떻게 풀 것인가



윤영주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

공공기관과 연관 기업의 안정적 정착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목적이다. 더 나아가 주변 자치단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성과를 공유하는 게 최종 목적이다. 빛가람혁신도시는 지난 2005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최종 확정되고, 2015년 12월 말 부지 조성 및 기반 조성 공사가 완료됐다. 현재 16개 이전 대상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우

정사업정보센터 등 15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7007명이 이주해 근무하고 있으며, 빛가람 주민 2만8040명이 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등 연관 기업 280개사가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150개 기업이 투자를 실행해 25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2020년까지 연관 기업 500개를 유치해 3만 개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유지·관리를 인계받은 나주시는 구조적·기계적 행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시설·버스시스템·문화시설 개선, 이전 기관 직원 정착 지원, 도로 및 공원 개선, 하수 및 수질 환경 사업 등 24개 사업에 지난 3년(2014~2016년) 총 872억 원을 투입했다. 또 호수공원, 가로등, 자전거 도로, 청소년·환경 등에 연평균 유지 관리비 272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10개 혁신도시 중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권인 9위에 머물렀다. 아직도 주민 숙원 사업인 복합문화 체육센터, 기업지원 종합발전센터, 의료건강

진센터, 진입도로 연계 사업 등에 3000억 원 이상 투입돼야 하는 실정이다. 2015년 여름 혁신도시 주변 축산 시설로 인한 대기 환경 오염이 심각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때 전남도에서 70억 원, 나주시에서 210억 원 등 총 280억 원을 긴급 예산으로 투입, 선제적으로 대처·해결한 적이 있다.광주시에서도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동 혁신도시 차원의 예산 지원을 검토했으나 시의회를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는 736만1000㎡(약 210만평) 범주 내의 발전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공동 발전을 위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나주시장이 지난 2006년 이전 공공기관이 나주시에 낸 지방세를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14년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 기관들이 이전해온 시기부터 지금까지 나주시에 낸 지방세는 465억 원이다. 회계 분석해 보면 407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나주시에서는 지역 발전기금으로 출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다. 그러나 잉여 자금 출연이 가능한 시기를 고려해 공동 기금 운용, 사용 범위, 기금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기본 조례는 합의안을 도출해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전남도는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의 재원 범위, 용도, 기금 운용 등 조례안에 대해 광주시 관계 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수차례 협의 토론한 바 있다. 최근에는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 실무위원회에서 정주 여건 투자 내역과 향후 투자 내역, 기금조성 시기 등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한 바 있다. 이전 공공기관의 취체제 면제, 재산세(5년 면제, 3년 감면) 감면 기간이 끝나는 2023년부터 기금 출연 자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와 광주시, 나주시에는 혁신도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공동 발전기금을 빠른 시일 내에 출연 조성해 동반 발전을 견결히 바라며 준비하고 있다. 독자적인 접근보다는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잘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

社說

최저임금 후폭풍 지속적인 보완 대책 있어야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인상된다. 또 국회는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 새 고용 정책이 시행되면 노동 시장은 일대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내년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된 157만3770원을 받게 된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시발점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소득 불평등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세계 최강의 근로시간 단축 역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내년엔 한

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부족분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증가를 감당하지 못해 퇴출되는 사례가 잇따를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공장 자동화와 가족 경영 확대 등에서 살길을 찾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내년 채용 전망을 조사한 결과 18.1%만 ‘계속 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는 ‘계속 없다’(41.3%)거나 ‘미정’(40.6%)이라고 답했다. 정책 변화로 영세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본다면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저임금의 범위와 특별 연장 근로 허용 등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세심하게 살펴 지속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깜빡 잇고 켜지 않는 ‘깜빡이’ 사고 유발한다

아직도 운전중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지 않는 운전자가 100명 중 30명이나 되며, 도로 횡단 중 휴대폰 사용 보행자도 13명에 달한다고 한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 중 모든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교통안전 수칙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나이지고 있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선진국에 비해 2~3배 가량 높은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국토교통부가 운전 및 보행 행태·교통안전 등 3개(11개 항목) 영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 국민 교통안전 의식 수준을 계량화한 올해의 ‘교통문화지수’를 최근 발표했다. 교통문화지수 조사 항목 중 가장 점수가 낮은 것은 ‘방향지시등 점등률’(70.57%)이었다. 운전자의 30%가 차선 변경 시 깜빡이등을 켜지 않는다는 것이다. 운전면허 시험에서 가장 기본은 차선 변경 시 깜빡이 켜기이지만 면허 취

득 후에는 깜빡이를 켜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운전자가 많다. 차선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깜빡이를 켜, 뒤에서 오는 차량에 미리 알려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앞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탓에 사고가 일어나거나 보복운전으로 변신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신호 준수율도 오토바이 승차자의 안전도 작용률은 미미한 정도지만 떨어졌으며, ‘지자체 교통안전 노력도’도 낮아졌다. 이밖에 안전띠 착용률과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은 크게 좋아졌으며, 횡단 시 스마트폰 사용 보행자 비율도 소폭이나마 개선됐다.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휴대폰을 쓰는 보행자 비율은 13.15%나 돼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특히 광주의 교통문화지수 순위는 지난해 5위에서 14위로 추락했다. 깜빡이 켜기, 보행중 휴대폰 사용 않기 등은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無 等 鼓

예루살렘이 또다시 ‘세계의 화약고’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면서 전 세계와 이슬람권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최근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예루살렘 선언’ 반대 결의안이 찬성 128표, 반대 9표로 채택됐지만, 트럼프는 막무가내식으로 중동의 화약고에 불을 지피고 있다. 화약고(火藥庫)는 화약을 저장하는 창고를 말하지만 19세기 이후 세계 언론들이 전쟁이 터질 위험성이 있는 지역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면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 됐다. 유럽에서는 ‘크림반도’와 ‘발칸반도’가 일부 국가의 독립 전쟁과 민족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의 화약고’로 불렸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 중동은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을 선포한 뒤 지금까지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동안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세계의 화약고’ 중 하나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과정에서 이집트·요르단·시리아·레바논 등 아랍국가와의 1차 중동전쟁을 시작으로, 1973

년 4차 중동전쟁까지 모두 네 차례의 전쟁을 벌였다. 이후 이스라엘에 영토를 빼앗긴 팔레스타인은 두 차례 반(反)이스라엘 저항 운동인 ‘인티파다’(Intifada)를 벌이며 끝없는 유혈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예루살렘이 국제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점은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성시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유대교·그리스도교·이슬람교의 3대 종교가 탄생한 도시로, 서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면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 됐다. 유럽에서는 ‘크림반도’와 ‘발칸반도’가 일부 국가의 독립 전쟁과 민족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의 화약고’로 불렸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 중동은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을 선포한 뒤 지금까지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동안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세계의 화약고’ 중 하나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과정에서 이집트·요르단·시리아·레바논 등 아랍국가와의 1차 중동전쟁을 시작으로, 1973년 4차 중동전쟁까지 모두 네 차례의 전쟁을 벌였다. 이후 이스라엘에 영토를 빼앗긴 팔레스타인은 두 차례 반(反)이스라엘 저항 운동인 ‘인티파다’(Intifada)를 벌이며 끝없는 유혈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예루살렘이 국제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점은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성시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유대교·그리스도교·이슬람교의 3대 종교가 탄생한 도시로, 서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면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 됐다. 유럽에서는 ‘크림반도’와 ‘발칸반도’가 일부 국가의 독립 전쟁과 민족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의 화약고’로 불렸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 중동은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을 선포한 뒤 지금까지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동안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세계의 화약고’ 중 하나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과정에서 이집트·요르단·시리아·레바논 등 아랍국가와의 1차 중동전쟁을 시작으로, 1973년 4차 중동전쟁까지 모두 네 차례의 전쟁을 벌였다. 이후 이스라엘에 영토를 빼앗긴 팔레스타인은 두 차례 반(反)이스라엘 저항 운동인 ‘인티파다’(Intifada)를 벌이며 끝없는 유혈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예루살렘이 국제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점은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성시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유대교·그리스도교·이슬람교의 3대 종교가 탄생한 도시로, 서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면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 됐다. 유럽에서는 ‘크림반도’와 ‘발칸반도’가 일부 국가의 독립 전쟁과 민족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의 화약고’로 불렸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 중동은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을 선포한 뒤 지금까지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동안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세계의 화약고’ 중 하나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과정에서 이집트·요르단·시리아·레바논 등 아랍국가와의 1차 중동전쟁을 시작으로, 1973년 4차 중동전쟁까지 모두 네 차례의 전쟁을 벌였다. 이후 이스라엘에 영토를 빼앗긴 팔레스타인은 두 차례 반(反)이스라엘 저항 운동인 ‘인티파다’(Intifada)를 벌이며 끝없는 유혈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예루살렘이 국제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점은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성시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유대교·그리스도교·이슬람교의 3대 종교가 탄생한 도시로, 서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면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 됐다. 유럽에서는 ‘크림반도’와 ‘발칸반도’가 일부 국가의 독립 전쟁과 민족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의 화약고’로 불렸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 중동은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을 선포한 뒤 지금까지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동안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세계의 화약고’ 중 하나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과정에서 이집트·요르단·시리아·레바논 등 아랍국가와의 1차 중동전쟁을 시작으로, 1973년 4차 중동전쟁까지 모두 네 차례의 전쟁을 벌였다. 이후 이스라엘에 영토를 빼앗긴 팔레스타인은 두 차례 반(反)이스라엘 저항 운동인 ‘인티파다’(Intifada)를 벌이며 끝없는 유혈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예루살렘이 국제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점은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성시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유대교·그리스도교·이슬람교의 3대 종교가 탄생한 도시로, 서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면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 됐다. 유럽에서는 ‘크림반도’와 ‘발칸반도’가 일부 국가의 독립 전쟁과 민족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의 화약고’로 불렸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 중동은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을 선포한 뒤 지금까지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동안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세계의 화약고’ 중 하나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과정에서 이집트·요르단·시리아·레바논 등 아랍국가와의 1차 중동전쟁을 시작으로, 1973년 4차 중동전쟁까지 모두 네 차례의 전쟁을 벌였다. 이후 이스라엘에 영토를 빼앗긴 팔레스타인은 두 차례 반(反)이스라엘 저항 운동인 ‘인티파다’(Intifada)를 벌이며 끝없는 유혈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예루살렘이 국제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점은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성시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유대교·그리스도교·이슬람교의 3대 종교가 탄생한 도시로, 서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면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 됐다. 유럽에서는 ‘크림반도’와 ‘발칸반도’가 일부 국가의 독립 전쟁과 민족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의 화약고’로 불렸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 중동은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을 선포한 뒤 지금까지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동안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세계의 화약고’ 중 하나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과정에서 이집트·요르단·시리아·레바논 등 아랍국가와의 1차 중동전쟁을 시작으로, 1973년 4차 중동전쟁까지 모두 네 차례의 전쟁을 벌였다. 이후 이스라엘에 영토를 빼앗긴 팔레스타인은 두 차례 반(反)이스라엘 저항 운동인 ‘인티파다’(Intifada)를 벌이며 끝없는 유혈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예루살렘이 국제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점은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성시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유대교·그리스도교·이슬람교의 3대 종교가 탄생한 도시로, 서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면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 됐다. 유럽에서는 ‘크림반도’와 ‘발칸반도’가 일부 국가의 독립 전쟁과 민족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의 화약고’로 불렸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 중동은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을 선포한 뒤 지금까지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동안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세계의 화약고’ 중 하나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과정에서 이집트·요르단·시리아·레바논 등 아랍국가와의 1차 중동전쟁을 시작으로, 1973년 4차 중동전쟁까지 모두 네 차례의 전쟁을 벌였다. 이후 이스라엘에 영토를 빼앗긴 팔레스타인은 두 차례 반(反)이스라엘 저항 운동인 ‘인티파다’(Intifada)를 벌이며 끝없는 유혈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예루살렘이 국제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점은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성시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유대교·그리스도교·이슬람교의 3대 종교가 탄생한 도시로, 서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면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 됐다. 유럽에서는 ‘크림반도’와 ‘발칸반도’가 일부 국가의 독립 전쟁과 민족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의 화약고’로 불렸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 중동은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을 선포한 뒤 지금까지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동안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세계의 화약고’ 중 하나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과정에서 이집트·요르단·시리아·레바논 등 아랍국가와의 1차 중동전쟁을 시작으로, 1973년 4차 중동전쟁까지 모두 네 차례의 전쟁을 벌였다. 이후 이스라엘에 영토를 빼앗긴 팔레스타인은 두 차례 반(反)이스라엘 저항 운동인 ‘인티파다’(Intifada)를 벌이며 끝없는 유혈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예루살렘이 국제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점은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성시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유대교·그리스도교·이슬람교의 3대 종교가 탄생한 도시로, 서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면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 됐다. 유럽에서는 ‘크림반도’와 ‘발칸반도’가 일부 국가의 독립 전쟁과 민족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의 화약고’로 불렸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 중동은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을 선포한 뒤 지금까지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동안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세계의 화약고’ 중 하나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과정에서 이집트·요르단·시리아·레바논 등 아랍국가와의 1차 중동전쟁을 시작으로, 1973년 4차 중동전쟁까지 모두 네 차례의 전쟁을 벌였다. 이후 이스라엘에 영토를 빼앗긴 팔레스타인은 두 차례 반(反)이스라엘 저항 운동인 ‘인티파다’(Intifada)를 벌이며 끝없는 유혈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예루살렘이 국제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점은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성시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유대교·그리스도교·이슬람교의 3대 종교가 탄생한 도시로, 서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면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 됐다. 유럽에서는 ‘크림반도’와 ‘발칸반도’가 일부 국가의 독립 전쟁과 민족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의 화약고’로 불렸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 중동은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을 선포한 뒤 지금까지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동안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세계의 화약고’ 중 하나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과정에서 이집트·요르단·시리아·레바논 등 아랍국가와의 1차 중동전쟁을 시작으로, 1973년 4차 중동전쟁까지 모두 네 차례의 전쟁을 벌였다. 이후 이스라엘에 영토를 빼앗긴 팔레스타인은 두 차례 반(反)이스라엘 저항 운동인 ‘인티파다’(Intifada)를 벌이며 끝없는 유혈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예루살렘이 국제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점은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성시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유대교·그리스도교·이슬람교의 3대 종교가 탄생한 도시로, 서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면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 됐다. 유럽에서는 ‘크림반도’와 ‘발칸반도’가 일부 국가의 독립 전쟁과 민족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의 화약고’로 불렸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 중동은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을 선포한 뒤 지금까지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동안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세계의 화약고’ 중 하나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과정에서 이집트·요르단·시리아·레바논 등 아랍국가와의 1차 중동전쟁을 시작으로, 1973년 4차 중동전쟁까지 모두 네 차례의 전쟁을 벌였다. 이후 이스라엘에 영토를 빼앗긴 팔레스타인은 두 차례 반(反)이스라엘 저항 운동인 ‘인티파다’(Intifada)를 벌이며 끝없는 유혈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예루살렘이 국제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점은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성시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유대교·그리스도교·이슬람교의 3대 종교가 탄생한 도시로, 서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면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 됐다. 유럽에서는 ‘크림반도’와 ‘발칸반도’가 일부 국가의 독립 전쟁과 민족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의 화약고’로 불렸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 중동은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을 선포한 뒤 지금까지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동안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세계의 화약고’ 중 하나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과정에서 이집트·요르단·시리아·레바논 등 아랍국가와의 1차 중동전쟁을 시작으로, 1973년 4차 중동전쟁까지 모두 네 차례의 전쟁을 벌였다. 이후 이스라엘에 영토를 빼앗긴 팔레스타인은 두 차례 반(反)이스라엘 저항 운동인 ‘인티파다’(Intifada)를 벌이며 끝없는 유혈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예루살렘이 국제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점은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성시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유대교·그리스도교·이슬람교의 3대 종교가 탄생한 도시로, 서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면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 됐다. 유럽에서는 ‘크림반도’와 ‘발칸반도’가 일부 국가의 독립 전쟁과 민족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의 화약고’로 불렸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 중동은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을 선포한 뒤 지금까지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동안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세계의 화약고’ 중 하나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과정에서 이집트·요르단·시리아·레바논 등 아랍국가와의 1차 중동전쟁을 시작으로, 1973년 4차 중동전쟁까지 모두 네 차례의 전쟁을 벌였다. 이후 이스라엘에 영토를 빼앗긴 팔레스타인은 두 차례 반(反)이스라엘 저항 운동인 ‘인티파다’(Intifada)를 벌이며 끝없는 유혈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예루살렘이 국제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점은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성시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유대교·그리스도교·이슬람교의 3대 종교가 탄생한 도시로, 서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면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 됐다. 유럽에서는 ‘크림반도’와 ‘발칸반도’가 일부 국가의 독립 전쟁과 민족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의 화약고’로 불렸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 중동은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을 선포한 뒤 지금까지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동안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세계의 화약고’ 중 하나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과정에서 이집트·요르단·시리아·레바논 등 아랍국가와의 1차 중동전쟁을 시작으로, 1973년 4차 중동전쟁까지 모두 네 차례의 전쟁을 벌였다. 이후 이스라엘에 영토를 빼앗긴 팔레스타인은 두 차례 반(反)이스라엘 저항 운동인 ‘인티파다’(Intifada)를 벌이며 끝없는 유혈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예루살렘이 국제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점은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성시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유대교·그리스도교·이슬람교의 3대 종교가 탄생한 도시로, 서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면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 됐다. 유럽에서는 ‘크림반도’와 ‘발칸반도’가 일부 국가의 독립 전쟁과 민족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의 화약고’로 불렸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 중동은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을 선포한 뒤 지금까지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동안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세계의 화약고’ 중 하나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과정에서 이집트·요르단·시리아·레바논 등 아랍국가와의 1차 중동전쟁을 시작으로, 1973년 4차 중동전쟁까지 모두 네 차례의 전쟁을 벌였다. 이후 이스라엘에 영토를 빼앗긴 팔레스타인은 두 차례 반(反)이스라엘 저항 운동인 ‘인티파다’(Intifada)를 벌이며 끝없는 유혈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예루살렘이 국제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점은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성시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유대교·그리스도교·이슬람교의 3대 종교가 탄생한 도시로, 서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면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 됐다. 유럽에서는 ‘크림반도’와 ‘발칸반도’가 일부 국가의 독립 전쟁과 민족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의 화약고’로 불렸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 중동은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을 선포한 뒤 지금까지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동안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세계의 화약고’ 중 하나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과정에서 이집트·요르단·시리아·레바논 등 아랍국가와의 1차 중동전쟁을 시작으로, 1973년 4차 중동전쟁까지 모두 네 차례의 전쟁을 벌였다. 이후 이스라엘에 영토를 빼앗긴 팔레스타인은 두 차례 반(反)이스라엘 저항 운동인 ‘인티파다’(Intifada)를 벌이며 끝없는 유혈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예루살렘이 국제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점은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성시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유대교·그리스도교·이슬람교의 3대 종교가 탄생한 도시로, 서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면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 됐다. 유럽에서는 ‘크림반도’와 ‘발칸반도’가 일부 국가의 독립 전쟁과 민족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의 화약고’로 불렸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 중동은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을 선포한 뒤 지금까지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동안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세계의 화약고’ 중 하나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과정에서 이집트·요르단·시리아·레바논 등 아랍국가와의 1차 중동전쟁을 시작으로, 1973년 4차 중동전쟁까지 모두 네 차례의 전쟁을 벌였다. 이후 이스라엘에 영토를 빼앗긴 팔레스타인은 두 차례 반(反)이스라엘 저항 운동인 ‘인티파다’(Intifada)를 벌이며 끝없는 유혈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예루살렘이 국제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점은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성시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유대교·그리스도교·이슬람교의 3대 종교가 탄생한 도시로, 서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면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 됐다. 유럽에서는 ‘크림반도’와 ‘발칸반도’가 일부 국가의 독립 전쟁과 민족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의 화약고’로 불렸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 중동은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을 선포한 뒤 지금까지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동안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세계의 화약고’ 중 하나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과정에서 이집트·요르단·시리아·레바논 등 아랍국가와의 1차 중동전쟁을 시작으로, 1973년 4차 중동전쟁까지 모두 네 차례의 전쟁을 벌였다. 이후 이스라엘에 영토를 빼앗긴 팔레스타인은 두 차례 반(反)이스라엘 저항 운동인 ‘인티파다’(Intifada)를 벌이며 끝없는 유혈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예루살렘이 국제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점은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성시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유대교·그리스도교·이슬람교의 3대 종교가 탄생한 도시로, 서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면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 됐다. 유럽에서는 ‘크림반도’와 ‘발칸반도’가 일부 국가의 독립 전쟁과 민족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의 화약고’로 불렸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 중동은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을 선포한 뒤 지금까지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동안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세계의 화약고’ 중 하나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과정에서 이집트·요르단·시리아·레바논 등 아랍국가와의 1차 중동전쟁을 시작으로, 1973년 4차 중동전쟁까지 모두 네 차례의 전쟁을 벌였다. 이후 이스라엘에 영토를 빼앗긴 팔레스타인은 두 차례 반(反)이스라엘 저항 운동인 ‘인티파다’(Intifada)를 벌이며 끝없는 유혈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예루살렘이 국제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점은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성시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유대교·그리스도교·이슬람교의 3대 종교가 탄생한 도시로, 서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면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 됐다. 유럽에서는 ‘크림반도’와 ‘발칸반도’가 일부 국가의 독립 전쟁과 민족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의 화약고’로 불렸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